

작지만 역동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는 조치원

한상욱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치원은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남 연기·공주에서 승용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 주거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이 될 오송역(경부·호남선 분기역)까지는 차로 5분 거리다. 이러한 교통결절기능과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에 부응하여 대형 건설업체의 아파트 신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조치원이다.

일반 주민에게 조치원에 대한 이미지를 물으면, 아마 복숭아, 최치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경부선과 충북선이 분기하는 절절지 등으로 응답할 것이다. 과연 조치원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이미지들은 언제부터 형성된 것일까? 우선, 본 고에서는 조치원의 역사와 관련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역사적 바탕에 근거한 현재 조치원의 상황을 알아본 후 조치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조치원의 역사

조치원의 명칭을 보고서 “조치원=최치원”이라고 연상하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는 통일신라시대의 최치원(崔致院)을 끌어다 붙여 최치원이 한양(한성)으로 가던 중 조치원 주막에 자주 들러갔기에 최치원에서 조치원으로 바뀌었다고 그 유래를 적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공무원이 만들어 낸 최치원=조치원이 조치원의 유래가 됐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조치원의 지역명은 1914년에 처음 생긴 지명으로 연기군 고을(院)의 중심지가 아니었고, 당연히 원(院)이 있던 곳이 아니다. 단지 논농사 짓기 좋은 곳이었다. 1931년 조치원읍이 될 당시 이곳은 연기군 북면으로 허허벌판, 아니 늪지대였다. 연기군 전설에 의하면 조선 초기 연기현감이 용감무쌍하게 새내 물을 끌어들이 풍년을 이루었기에 그 현감에 대한 송덕비까지 평리에 세웠는

데, 일제 강점기시 일본인들이 재수 없다고 땅 속에 묻었다. 원래의 조치원 땅은 논농사가 제격이었다고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저수지 역할을 했던 수원지 자리가 지금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조치원의 명칭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이에 대해서 조치원의 문화원은 다음과 같은 전하고 있다.

“원래 조치원(鳥川院)이었는데 1902년 경부선 역을 지어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조치원(鳥川院)의 일본식 발음이 조선인(朝鮮人)과 같아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되어, 신라 때 학자인 최치원에서 유래된 것처럼 날조했다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참고로 조치원의 일본어 발음은 '쇼오센인'이고, 조선인은 '쇼오센징'이다.

원래 연기군 조치원을 자리는 물이 많고 습지대라 논농사를 주로 하던 곳이었다. 당시는 연기군 북면으로 당시의 고을 관청은 연기군 남면의 연기리였다. 그곳에 군의 행정관청이 몰려 있었고 향교가 있었다. 뒤에는 당산이 있고 동으로는 미호천이 흘러 금강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이는 백제시대 때부터 이곳이 줄곧 연기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기에 현재도 연기군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한층에 불과했던 조치원읍이 일제 시대에 철로가 지나가고, 1931년 조치원읍이 되면서 연기리보다 더 커져 중심이 30리 북쪽의 현재의 조치원으로 옮겨온 것 뿐이다.

일제시대 당시 한적한 늪지대인 조치원 쪽에 왜 철로가 났는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당시에는 유교사회로서 공주, 청주 양반들이 기차를 보고 귀신같은 흉물이라 하여 갓 쓰고 도포자락 휘날리며 철도 유치에 반대했던 것이다. 그러한 무지몽매가 오히려 지금 와서 보니, 두 지역의 발전을 저해한 원인이요, 청주·공주로 KTX를 서로 끌어가기 위한 눈물겨운 오늘날이 된 것이다. 이러한 비슷한 예로, 현재는 대전광역시의 대덕구이지만, 당시에는 대덕군의 넓은 밭에 불



자료 : 조선전안, 1906

〈그림 1〉 조치원을 최치원으로 표기한 지도

과했던 한밭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결국, 연기군 조치원은 일제 강점기의 일본인의 잔피에서 나온 지명에 불과하다. 즉, 초등학교 시절부터 익숙하게 들던 조치원의 유래가 일제강점기시 조작된 내용이며, 조치원과 최치원은 전혀 관계없는 날조된 지명으로 현 상황에서 한번쯤은 조치원의 지명 변경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문제다.

조치원의 현황 및 여건

조치원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연기군의 군청소재지로 연기군 전체 인구 84,107명중 35,871명이 삶을 영위하는 곳이다. 연기군의 동측으로는 청주와 오송시가, 서측으로는 공주시가, 남측으로는 대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북측으로는 천안시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주변의 중대 도시들과의 도시세력 비교시 연기군 및 조치원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세에 있는 지역이다.

지리적으로는 국가간선망이 통과하는 교차지점으로 주변도시간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대전과는 약 37km, 청주 19km, 천안 28km, 공주 23km의 거리를 각각 두고, 이들 도시에 둘러쌓인 곳으로 연기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자연환경면에서는 북서쪽으로는 작은 산들이 둘러 쌓여있는 지형이며, 동쪽으로는 조천이 충청북도와 도계를 이루며 중심시가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연기군은 충청남도내의 16개 시·군중에서도 개발이 활발한 곳으로서 조치원의 경우도 연평균 1.4%대의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9년 이후 침산리의 옥일2차 아파트 입주를 시점으로 하여 최근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배후 주거지로서의 대형건설업체의 아파트 건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전체 세대수는 12,866명이고, 주택보급률은 100%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 및 세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치원읍에 거주하는 학령인구(15-19세)는 연평균 -4.43%씩 감소하고 있어 중·고등 교육환경이 낙후되고 있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조치원의 산업분포는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58.94%, 종사자는 60.44%로 1·2차 산업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편이며, 도시적 면모를 갖추고 있다. 특히 전국대비 종사자 기준의 조치원읍의 특화 업종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인근 광역도시권인 청주시 1.25, 대전시 1.24, 천안시 1.12보다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교육 서비스업이 특화되어 나타나는 이유는 조치원에 고려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치원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이 바로 조치원 우리시장이다. 조치원 우리시장은 대전 유성시장, 공주시장과 함께 충청지역 5대 시장으로 꼽히는 시장으로 전국의 각종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다.



〈조치원 우리시장의 활기찬 모습〉

역사적으로 국도 1호선과 경부고속도로, 대전-논산 간 고속도로, 경부선 등이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 적은 운송비용으로 농산물을 들여와 팔수 있기 때문인데, 조치원역에서 동측 청주방향에 위치한 우리시장(6,600㎡)은 경부선 개통으로 조치원이 교통의 요충지로 각광받기 시작한 1931년 처음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충청지역 서민들과 이환을 함께해오고 있는 시장이다. 이곳에는 180여개의 점포에 100여명의 노점상을 포함, 모두 300여명의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시장으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5일장의 모습을 간직하며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농산물과 식료품, 수산물, 잡화 등 100여 가지 품목이 선보이며 우리시장의 대표적인 품목은 마늘과 고추다. 가을에 충북 음성, 제천 등에서 출하된 농산물은 김장철이 되면 대전과 청주, 천안 등에서 아줌마들이 단체로 불러와서 인산인해를 이루며, 복숭아와 배, 사과, 딸기 등 과일도 6월말부터 9월 중순까지 대량으로 거래되는 곳이기도 하다.



〈조치원의 명물 복숭아〉

대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및 구도심의 쇠퇴 예상

조치원은 현재 동측으로는 구도심의 상권이 발달되어 있으며 서측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신주거

충남의 도시 12 - 조치원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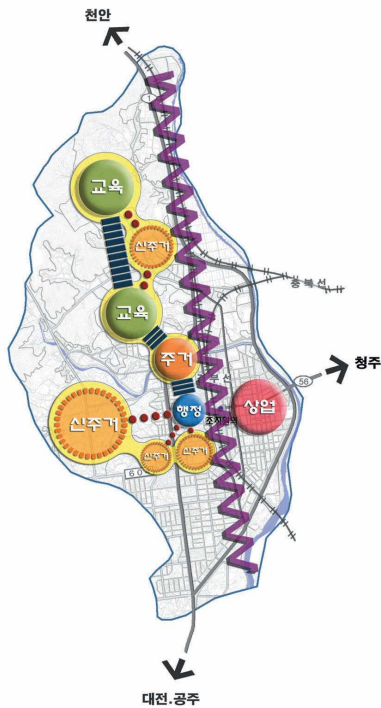
공간이 조성되면서 2개의 종합대학을 포함한 교육중심의 생활정주공간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이로써 동측의 구도심 기능은 점차 쇠퇴하여 그 기능은 서측의 생활정주공간으로 이동하여 조치원읍의 정주체계는 점차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경부선 철도와 충북선 철도의 교차점으로서 조치원 발전의 계기가 되었던 철도는 주변 중·대도시권에서의 접근성은 양호하나 철도역의 이용이 원활하지 못해 철도 교차지점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도시 간 광역 연결망은 남북으로 국도 1호선과 서쪽으로 지방도 36호선이 담당하고 있으나 경부선·충북선 철도로 인해 도로의 동서 간 연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중소도시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도로, 철도 등의 결절점에 자연발생적으로 비정형적 도시 형태로 발달하여 현재와 같은 도심지로 기능하게 되었으나, 지역간선교통망에 의해 시가지가 인위적으로 단절되어 불균형적 발전을 초래하는 현상이다.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진행됨으로써 도심지역의 형태가 간선교통망을 따라 띠 형태로 발전하고 그 뒤로 배후 밀집지역이 형성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성장하던 지방중소도시의 도심지역은 유입되는 인구를 외곽지역에 택지개발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게 되고, 교통량이 간선교통망에 집중되다 보니 교통이 원활히 소용되지 못하고, 통과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회노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코자 하고 있다.

조치원 역시 이러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는 고려대학교와 홍익대학교가 위치한 서측과 구도심이 동서로 중심역할을 수행중이지만, 서측의 택지개발사업의 확대에 의하여 서측에는



〈그림 2〉 조치원읍의 공간구조

지속적인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대학교와 신거주공간은 그 세력권을 확대하여 새로운 공간구조로 재편되게 될 것이다.

또한, 조치원역이 위치한 동측은 구도심으로서 상업시설의 이탈과 시설노후화로 인한 쇠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용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공간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측으로의 공간 확대로 인해 동서 공간구조의 불균형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조치원역의 모습〉

기능적 측면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초기에는 새로운 배후주거단지로서 조치원 서측에 택지개발의 조성이 확대되고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될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주거단지는 동측에 모듬살이를 하던 지역주민을 서측으로 끌어들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서측은 인구가 집중되는 반면 동측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발생할 것이다. 도시기능적인 면에서도 개발가능지가 풍부하고,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서측에 주거, 업무, 상업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이에 따라 교육기능도 재편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원내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역사적으로 조치원을 주변에는 항상 조치원보다 거대한 도시들이 자리잡고 있었고, 현재는 설상가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새롭게 건설·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조치원읍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분절된 동·서의 공간구조를 조화롭게 균형발전토록 유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동서간 상호연계 가능한 조치원읍의 도시기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구도심지역의 침체와 공동화 문제의 해결이 신·구도심지역 균형발전의 전제가 되어야 하기

충남의 도시 12 - 조치원읍

때문에 모든 외곽지역의 신규개발 정책은 구도심의 재생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도시관리 방향을 성장관리형 도시재생의 원칙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구도심의 부활과 신도심의 적정 성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개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도시성장관리가 기성시가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통합됨으로써 구도심 재생과 지역 간 균형성장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조치원의 불균형 문제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시공간구조의 다핵화 정책에 따른 도심기능의 균형적 분배가 아닌 일방적 유출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침체된 기존의 도심업종(소매업, 도심형 제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도심의 잠재력과 부합되는 문화산업 및 기술집약적 첨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심의 중추적 기능을 유지하고 도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물리적인 환경측면에서는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체류하기에 편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건축물의 외관, 구조물의 디자인 등과 같이 도심경관의 개선을 통해 도심의 업무 및 주거환경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아래 조치원읍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측 도심지역과 서측 외곽 신시가지와의 기능적 분담 및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외곽시가지의 개발을 지양하고 상호간 기능의 분담과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차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외곽시가지는 생활권중심지로, 도심지역은 중심상업, 업무기능과 문화, 관광기능의 중추관리기능 중심지로 특화하여야 한다.

둘째, 핵심사업의 선정 및 단계별 시행이 필요하다.

우선, 도심지역 활성화를 담당할 행정부서와 민간협의조직을 설치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목표와 추진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파급효과와 실현가능성이 큰 핵심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기초적인 소규모 시설을 정비함과 동시에 핵심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관련사업의 종합적, 지속적인 관리와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도심의 기능적, 물리적 특성에 부합한 개발방식 적용한다.

대규모 철거재개발사업보다는 소규모 적응형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프로그램형, 프로젝트형 및 매니지먼트형의 도심활성화사업을 구분하여, 이들을 상호 적절히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프로그램형은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개발 및 정비방향을 설정, 실행프로그램을 만들어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프로젝트형은 도심지역의 특정 사업구역을 지정하여 일회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완성토록 한다. 매니지먼트형은 도심지역의 관리조직을 만들어 조직을 중심으로 전체사업을 유기적으로 운영 및 관리토록 한다.

넷째, 도심지역 활성화를 촉진 및 지원하는 법률 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도심정비구역 설정, 도심활성화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의 수립, 도심활성화사업방식, 도심지역 업종 정비개선 지원, 공공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지원방안, 도심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방채에 대한 특례, 도심활성화를 위한 시범도시제도, TMO와 관련주체간의 파트너십의 형성, 민간자본의 유치 및 활용 등을 담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실현가능성이 높은 도심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도심활성화 종합계획은 도심의 미래에 대한 목표와 지침을 제공하며, 이해당사자간 도심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관심과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조정의 준거로 활용한다.

여섯째, 도심관리조직의 육성 및 시민합의기반의 조성이다.

도로와 건축물 등의 정비와 함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을 설치하여 도심활성화 전체를 견인하고, 지자체와 시민 및 사업자간의 종합적인 조정 및 보완과 적극적 참여 유도, 각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대 등 적정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는 조직체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최성일, 삼국각축의 격전장, 조치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1.
2. 김태영, 일제 강점기 지방도시의 외인관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9권 제7호, 1993.
3. 연기군, 연기군 통계연보, 2007.
4. 연기군, 연기군지, 2007.
5. 연기군, 조치원을 종합육성계획, 2005.
6.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도시재생사업단 사전기획연구, 2006.